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8주년 추모식

追慕辭

2018. 5. 8.(월) 11:30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오늘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의 탄신 128주년을 맞이하여 선생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위국헌신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 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송진우 선생께서는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중앙학교 교장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의 도자로 우리 민족을 이끌 인재육성에 힘을 쏟으셨으며, 한편으로는 언론인으로서 국민계몽과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민족대표 48인으로서 3.1운동을 적극 계획하신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으며, 3·1운동 후에는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여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께서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굴의 정신과 확고한 신념으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매진하셨습니다.

고하 송진우 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모진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영전에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18. 5. 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강 만 희